

북한 식량·농업의 동향과 전망*

김영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원 | kyhoon@krei.re.kr

I. 만성적 식량 부족의 지속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은 2010년대를 넘어 202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 생산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 비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초중반까지 식량 생산이 480만톤을 상회하는 해가 종종 있었으나, 2016년 482만톤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매년의 추산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FAO 추산치 역시 최근의 식량 생산량이 2010년대 초반에 비해 낮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식량 생산량의 감소에 더해 인구 증가에 따른 총소요량 증가는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FAO의 생산 통계치 기준으로 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식량은 연평균 85만톤 부족하며, 농촌진흥청 생산량 추산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8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¹⁾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은 전반적으로 경제와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의 식량 부족은 경제 및 농업의 취약성에 더해 2016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그리고 2020년 이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가중된 것이라 볼 수 있다.²⁾

* 본 연구는 한반도경제협력원(2023)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제2부 5장 농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이들 부족량 추산치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AO가 북한의 식량 소요량을 추산할 때 계산한 '수확 후 손실 물량'에 '절취된 소비 물량'이 일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2) 2016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제재의 변화를 주도하여 민간경제와 군사경제 간의 구분을 없앴다. 2017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무부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고 부른 유엔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했다(이석 외, 2021, p.248).

〈표 1〉 북한의 식량 생산 및 소요량 추이(2012~21년)

(단위: 만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량	농진청 ¹⁾	467	480	480	451	482	470	455	461	440	469
	FAO ²⁾	513	521	526	477	478	452	397	529	489	n.a.
소요량 ³⁾		573	575	578	581	584	586	589	592	595	597
부족량	농진청 기준	106	95	98	130	102	116	134	131	155	128
	FAO 기준	60	54	52	104	106	134	192	63	106	n.a.

자료: 1)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에 관한 보도자료, 각년도.

2) FAOSTAT; 단, 2020년 수치는 FAO의 2020/21년 수급 전망치 자료를 차용(FAO GIEWS Update, 14 June 2021).

3) FAO의 2020/21년도 북한 식량 소요량 추정치를 이용(FAO GIEWS Update, 14 June 2021), 각년도 수치는 인구에 비례해 산출.

II. 2022년의 식량 수급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은 2022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비록 2021년의 식량 생산량이 469만톤으로 회복되어³⁾ 이월량 역시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했겠지만, 2022년의 절대적 부족을 메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또한 2021년에 감소한 식량 수입은 2022년 들어서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봄에는 2년 4개월 만의 국경봉쇄를 뚫고 북한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해 식량 공급과 농업 생산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북한의 식량 수급에 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발생에 따른 추가적 충격은 당초 우려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쌀, 옥수수, 감자 등 주요 식량의 공급이 대개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되고 있어(표 2) 곡물 수입 감소의 영향이 제한적이며,⁴⁾ 2021년 가을에 생산된 주곡(쌀과 옥수수)의 2022년 이월 공급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과 관계없이 북한의 2022년 식량 공급과 유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2년 봄철에는 이례적인 가뭄으로 맥류와 봄감자 생산이 감소해 그 비중에 따라 식량 공급이 감소할 개연성이 있었다.⁵⁾ 또한 코로나19 봉쇄·격폐

3) 이하에서 언급되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모두 농촌진흥청 추산치이다.

4) 북한의 주곡(쌀, 옥수수, 맥류)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2012~20년 기간). 그러나 북한정부가 대외경제의존도 인정하지 않아 제재의 영향이 축소 평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이석 외, 2021, p.261).

5) 최근 북한의 식량 공급에서 맥류, 밀가루, 봄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내외이다.

시기에 식량의 배급과 시장 유통에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물론 2022년 봄철에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봄작물 작황에 피해가 일부 발생했다. 그러나 2021년 가을에 맥류 식부면적의 확대에 따른 증산으로 작황 피해를 상쇄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유행이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진정되고 긴급 통제와 격폐도 단기간에 완화되어(참고 1), 그 이후 식량의 유통과 농업 생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분배, 국가의 배급, 공장·기업소의 공급 기능이 특별히 더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2년

<표 2> 북한의 주요 곡물 대중수입 의존도(쌀, 옥수수, 맥류)

(단위: 천톤, %)

	공급량	수입량	수입비중
2012	4,220	264	6.2
2014	4,214	162	3.8
2016	4,155	55	1.3
2018	4,100	243	5.9
2020	3,806	115	3.0
2021	3,905	2	0.1

주: 1) 공급량은 생산량+수입량임.
2) 맥류는 수입 밀가루를 포함함.

자료: 생산량(통계청 북한통계); 수입량(GTA:https://connect.ihsmarket.com, 검색일: 2022.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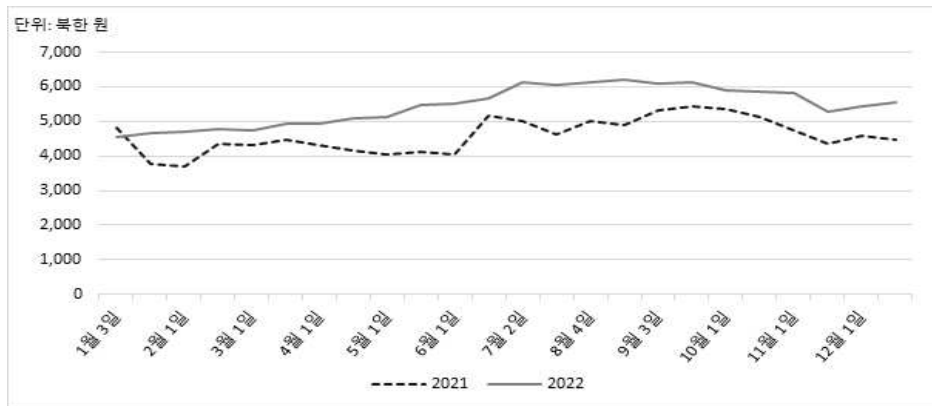
<참고 1>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경과

- 코로나19 감염자(유열자)는 북한 당국의 첫 발표 직후(2022. 5. 15)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후 꾸준히 감소해 안정된 상태
 - 1일 1만 8천명(5. 12) ⇨ 1일 39만 2천명(5. 15) ⇨ 1일 1만 5천명(6. 21)
 - 2022년 8월 10일 현재 누적 감염자 수 477만명(총인구의 18%)
(통일연구원, 북한 보도 기준 코로나19 현황, kinu.or.kr/cms/content/view/938, 검색일: 2022. 8. 17).
- 북한, 2022년 5월 말부터 국내 봉쇄를 완화했으며 8월 초 방역전선에서 승리를 선언
 - 평양시내 긴급 이동 통제 해제 (VOA, 6.1)
 -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6. 8~10),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BBC News 코리아, 6. 14).
 - 8월 10일 북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개최,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 하향 조정(통일연구원, 위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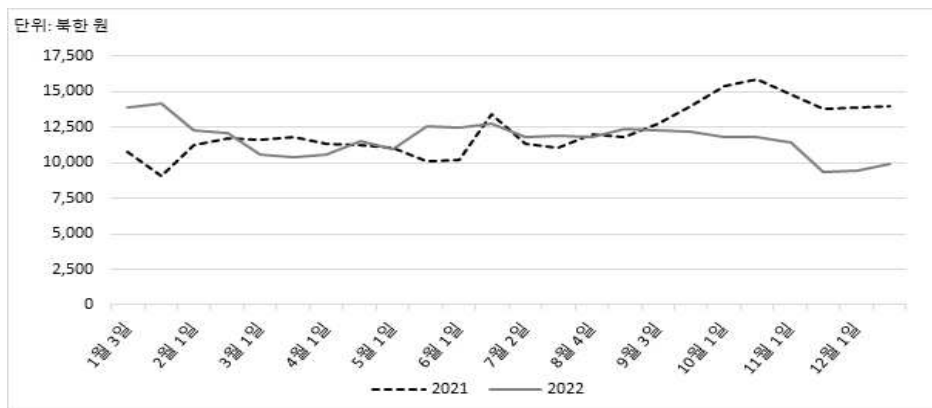
하반기 들어서는 공식적인 수입 재개와 함께 비공식적인 식량 도입도 이루어졌으며,⁶⁾ 가을 수확기 작황도 우려하던 것만큼 흉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곡물의 시장가격도 차츰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 추곡 작황이 확인된 11월에는 잠시나마 곡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그림 1).⁷⁾

[그림 1] 쌀, 밀가루, 옥수수의 시장가격 추이(2021. 1~2022. 11)

1)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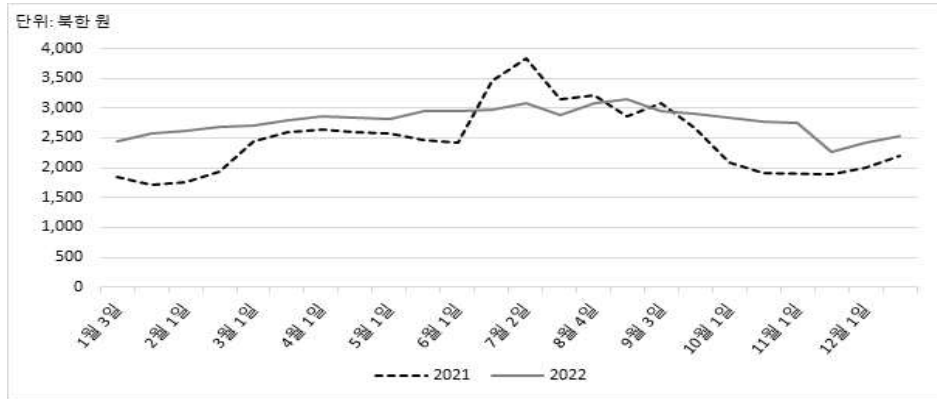


2) 밀가루



6) 공식적으로는 2022년의 대중수입이 7만여 톤에 불과하지만, 공식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대중국 추가 식량 도입량(지원, 밀무역)이 11만톤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12월 들어서는 시장가격이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11월의 가격 하락이 일시적 변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12월 가격의 소폭 상승이 예년의 시장가격 변동 패턴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옥수수



주: 평양, 사리원, 원산, 혜산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임(매월 1일과 15일).
자료: 서울평양뉴스.

III. 2022년의 식량 생산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기상 조건이 유리하지 않았다. 특히 농업기상, 즉 작물 생육기간(5~9월)의 기상이 전년과 예년에 비해 불리했다(표 3). 기온은 낮았고 강수량은 많았으며 일사량은 낮았다. 생육기 평균기온은 19.7°C로 이전 5년 평균에 비해 0.4°C 낮았으며, 강우량은 1,066mm로 5년 평균치에 비해 248mm 많았다. 그리고 일사량은 2,774MJ(megajoule)로 5년 평균치에 비해 135MJ 적게 나타났다. 봄철 이상 시기와 작물 생육 초기(4~5월)에도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농작업이 일부 지연되었고, 이 시기 수확을 앞둔 봄작물 작황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표 3〉 주요 식량작물의 농업 기상 조건(2022년)

작 물	농업 기상 조건
쌀	- 생식생장기(7월): 저온과 일사량 부족 - 등숙 후기(9월): 기온 하락
옥수수	- 생육 초기(4~5월): 강수량 부족 - 생육 중기, 등숙기(6~8월): 집중호우, 일사량 부족
서류	- 괴경형성, 비대기(5월): 가뭄 - 수확기: 강우 과다
맥류	- 생장 초기: 가뭄 - 수확기: 강우 과다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2. 12. 15).

한편, 2022년에는 비료 수입이 감소해 비료의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 총 68만 2,000톤의 화학비료를 조달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9.7% 감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연간 소요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이다.⁸⁾ 2022년뿐만 아니라 이 아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래 북한 농업은 늘 화학비료 부족에 시달려 왔다. 그만큼 북한은 비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더 공급하기 위해 북한 특유의 전통적 대응을 꾸준히 해왔다.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공급 증대는 농촌 현장을 넘어 국민운동으로 독려하고 있는 일이다. 국내에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인 석탄을 활용해 비료 원료를 얻는 석탄가스화 공정 개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으로 부족한 화학비료를 식량작물 생산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⁹⁾ 2022년 들어 화학비료 공급 감소에 직면한 북한은 당연히 이들 전통적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석탄 일부를 내수로 돌려 화학비료의 국내 생산 증대를 꾀했을 가능성도 있다.

2022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451만톤으로, 2021년에 비해 3.8%, 물량으로는 대략 18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¹⁰⁾ 이는 불리했던 농업기상과 농자재 조달 여건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 물량과 함께 대부분의 개별 식량작물 생산도 감소했는데, 전년에 비해 쌀은 4.2%, 옥수수는 1.3%, 서류는 14.0%, 두류는 5.3%, 기타 잡곡은 2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맥류는 생산이 증가(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맥류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30%가량 증가해 작황 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이다.¹¹⁾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생산 감소 요인은 불리했던 농업기상이었다.

<표 4> 2022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구분	단위	계	쌀	옥수수	서류	맥류	두류	잡곡
2022년 재배면적	천ha	1,889	502	748	351	104	156	28
2022년 생산량	만톤	451	207	157	49	18	18	1.8
2021년 생산량	만톤	469	216	159	57	16	19	2.3
전년 대비 증감률	%	-3.8	-4.2	-1.3	-14.0	12.5	-5.3	-21.7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2. 12. 15).

8) 북한은 화학비료를 2021년에는 75만 7천톤을, 2022년에는 68만 3천톤을 각각 공급했다(농촌진흥청, 2022년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 비공개 설명자료).

9) 비료 부족이 악화될 경우 식량작물에 비료를 우선 배분하면 비식량 농작물의 작황에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10) 농촌진흥청은 매년 말 작황 시범, 농업기상 평가, 비료·농약 수급,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식량작물 작황을 추정하고 있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 12. 15).

11) 북한의 새로운 농정시책에서 '쌀·밀 중심으로 알곡 생산과 소비구조 전환'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14기 5차 회의 결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2021년 12월 당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 의정 3 참조). 이 시책에 따라 2022년의 밀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IV. 새로운 농정과 의미

2016년과 2017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후 북한의 경제침체는 심화되었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당연히 농업 생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최근(2020년~)의 식량 생산이 자신의 집권 초기(2012~14년) 수준 이하로 낮아지자, 김정은 위원장은 로동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021. 2)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점검하며 농업 부문에 ‘허풍’이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농정전략의 전환과 새로운 농정시책 추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강조한 새로운 농정전략과 시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 두 가지 문건과 최근 개정된 농업 관련 법규를 통해 엿볼 수 있다.¹²⁾ 두 문건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2021. 9)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의정 3> 문건(2021. 12)이다. 이 문건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농업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적용한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2021. 9)에서는 주로 미시적인 농정 실천 과제들을 강조해 제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21. 12)에서는 1964년의 ‘사회주의 농촌체제’를 상기시키며 농촌의 사상 의식 수준 강화를 주문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가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등 거시적 농정전략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이 두 문건에 적시된 미시적 차원의 농정 실천과제는 대개 과거 농정시책을 다시 강조한 가운데 이상기후 대응, 밀 생산 강조, 국가투자 및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들 주요 농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 소출이 높은 종자 육종과 개량, 알곡 생산구조의 변화(밀 생산 확대)
- 축산 부문, 과일 및 남새 생산부문의 대응
- 농업 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와 본보기단위 창조
- 농업 관련 과학기술 육성과 선진농업으로 전환
- 국가투자 및 지원: 황해남도 농업개발, 농장 부채 상환면제

12) 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평양 중앙통신, 2021. 9. 30; ②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 12) 의정 3.

한편, 엄혹한 경제환경에 직면해 북한은 과거의 사회주의 농촌체제를 재조명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중앙 계획과 관리를 다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농정 추진전략의 재정립 혹은 수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재와 봉쇄로 가중된 극심한 제약 상황에서 가용 자원의 배분과 물자의 분배를 중앙정부가 다시 장악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의지를 새로운 농정 추진전략에 반영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농업 관련법 개정을 살펴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농정전략을 구상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2>는 농업 관련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법률의 개정 내용이 대개 중앙의 계획과 사회주의적 분배를 구체화 내지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2> 최근 관련법 신설과 개정 사례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반대법(2021년 신설)
 - 국가관리체계와 법의 통제 밖에서 각 부문과 단위의 이익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의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
- 농업법(2020년 개정)
 - 도 농업지도기관과 시·군 농업지도기관의 임무 구별과 강화
 - 농촌의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명확하게 재규정
- 농작물종자관리법(2020년 개정)
 - 신품종 시험 및 등록요건의 완화(기간 및 생산)
 - 계획 외 공급의 허용
- 농장법(2020~21년 기간 4차례 개정)
 - 농장을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 규정
 - 강냉이 농사의 제한과 벼, 밀, 보리 농사로 방향 전환
 - 농장원총회의 정기 소집과 농장 관리기구의 효율화(겸직 허용)
- 량정법(2021년 개정)
 - 의무수매계획 외 계약수매계획도 수립하도록 강제
 - 자유수매분의 교환과 판매 규정 강화(영농물자교류소 경우 강제)
 - 위반 시 처벌 및 형사책임 규정 강화
- 허풍방지법(2022년 신설)
 - 계획, 지도, 준비사업, 생산, 판결과 보고, 수매, 토지리용 등에서의 허풍 방지 규정
 - 위반 시 처벌 및 형사책임 규정 강화

자료: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하권」, 2020; 2022.

이 농정전략은, 중장기적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단기적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든 것이 불리해진 엄혹한 여건에서 지난 2년(2021~22년)의 연평균 식량 생산량은 그 이전 5년(2016~20년)의 평균 생산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결과의 배경에는 생산 요소의 배분과 생산 과정의 관리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미시적 농정시책들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 물자, 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대응 정책방안들이 획기적 수준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¹³⁾ 밀 농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장애 요인이 있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대체하지 않고 밀 농사를 늘리려면 이모작을 확대해야 한다. 생산 자재(특히 비료)와 기계 동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모작을 확대하면 토양 수탈과 수확 후 손실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 두 문제는 국제기구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으나 오랫동안 북한 농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다.

농업에서 새로운 본보기단위(시범단위)의 창조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면서 국가수매도 원활하게 하는 분배·수매 방식의 개선을 의미한다. 국가가 몇몇 시범농장에 특별한 투자나 지원을 집중하면 이들 농장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혁신을 북한 농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이미 2012~14년 기간부터 ‘포진책임담당제’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농기계 투자와 황해남도 농업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의 추진에도 국가의 투자재원 부족 문제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농정시책에는 협동농장 대부상환 면제라는 획기적 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 대부 상환이 연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부 상환 면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V. 진단과 전망

북한에 있어 2022년은 장기간의 제재와 코로나19 고립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경제와 농업에 누적되던 해였다.¹⁴⁾ 봄철 농사는 고온과 기쁨이라는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 출발했으며, 여름철의 농업기상도 불리했다.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높았으며 일사량은 낮았다. 화학비료 공급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5월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한때 위기 상황도 우려되었다. 요컨대 여러 가지 여건이 동시에 적신호를 보내던 상황이었다.

13) 북한이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서는 국가 SDG 이행의 장애와 어려움, 특히 자본과 기술 부족에 관해 토로하고 있다 (김영훈, 「북한의 2030 SDG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KREI 북한농업동향 제23권 제2호, 2021. 9).

14) 북한은 2017년부터 구조적인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최근까지 충분히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2020년부터 북한정부는 북한 내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단속했다. 정부는 주민들이 시장과 개인 생산을 통해 스스로 식량을 구할 기회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식량 가용성의 위기에 직면하는 동시에 접근성에 대한 기회도 잃었다(이석 외, p.250; p.257).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2022년에 중요한 농작업들은 큰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북한의 식량 생산은 450만톤 수준을 지킬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위기를 맞아 새로 내세운 농정전략과 시책이, 과거의 농촌테제까지 소환할 정도로 시장화와 분권화에 역행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억누르고 봉합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북한의 식량·농업 사정을 전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과 악화할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개선될 가능성으로는 식량 및 화학비료 도입 여건 호전, 다모작을 활용한 밭 재배면적의 확대, 농업기상 여건의 평년 수준으로의 회귀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2022년산 추곡 이월에 기초한 2023년 국내산 식량 공급은 감소하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된다면 식량과 화학비료 도입 여건은 호전될 수 있다. 새로운 농정전략을 따라 다모작을 활용한 밭 재배면적 확대도 예상되며, 2022년에 불리했던 농업기상은 평년 수준으로 환원될 개연성이 높다.

반면에 어려운 현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제재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누적되어 표출될 수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도 북한의 2023년 전반기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현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집단주의적 통제와 관리 강화에 의존했던 북한 농정의 효과가 2023년에도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하권」, 2020년, 2022년.
- 김영훈, 「북한의 2030 SDG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KREI 북한농업동향 제23권 제2호, 2021. 9.
-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작황 추정에 관한 보도자료」, 각년도.
- 이석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KDI 연구보고서 2021-01, KDI, 2021.
- 통일연구원, 북한 보도 기준 코로나19 현황, kinu.or.kr/cms/content/view/938, 검색일: 2022. 8. 17.
- FAO GIEWS Update, 14 June 2021.
- 조선로동당,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평양 중앙통신, 2021. 9. 30.
- 조선로동당,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의정 3, 2021. 12.